

“손상된 미(Broken Beauty)의 기독교적 원형과 예술적 체현에 대한 연구”에 관한 질의

서성록(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심정아박사는 발제문에서 기독교미술의 아키타입을 ‘손상된 미(broken beauty)’에서 찾고 그것이 어떻게 예술의 차원에서 적용되어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술계에는 신앙을 지닌 기독교 미술가들이 다수 있지만 신앙에 기초하여 작품을 하는 작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술계 현장에서 신앙과 예술이 물과 기름처럼 겹도는 미술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 비해 심정아박사는 기독교적 미를 ‘손상된 미’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미술사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학술적으로 살핀 유의미한 시도로 사료됩니다.

발제자는 특히 성만찬에 등장하는 ‘찢어진 빵(broken bread)’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면서 ‘손상된 미’의 기독교적 원형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성만찬이라는 상징적 사건속에서, 이상적인 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그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연소시키고, 나아가 자신을 희생물로 바친 ‘구속적 미(redemptive beauty)’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만찬의 나눔, 십자가의 책형과 같은 한량없는 사랑을 미의 기준으로 삼는 데서 논문의 독창성이 있다고 보며 이것이 기독교미술의 저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가 예술작품들의 역사 속에서 체현되어온 ‘손상된 미’를 북유럽의 거장 디에릭 보우츠(Dieric Bouts)의 <슬픔의 사람>과 표현주의자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의 초상화 연작들을 통해 그 실례를 들어봄으로써 그것이 긴 세월 동안 유유히 흘러왔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손상된 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심정아박사의 논문은 기독교미술만이 지닌 핵심적 미의 개념을 짚어주었고, 기독교미술의 이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두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첫째 발제자가 ‘손상된 미’의 작가로 북유럽의 미술가 디에릭 보우츠와 알브레히트 보우츠, 광대의 초상화로 널리 알려진 표현주의 화가 조르주 루오를 예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독교미술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더 있을 법한데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제자는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작가라면 동시대인 문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 예술에 대한 엄밀한 이해와 분석, 즉 현안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종교적인 카테고리 안에 안주하다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끈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문화와 격리되어버리는 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문화 참여를 통해 무질서하고 혼돈된 현실의 개혁을 이끌어낼 것을 지지합니다. 심정아 박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작가적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현실문화에 대해 발언하고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